

체험형 농촌관광 1000만명 시대 연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양한 체험형 농촌관광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과 전남지역에서 진행되는 뗏목체험행사와 캠핑장의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관광 활성화 총력전

- 마을 연계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진로 멘토링·관광열차 운영
- 온라인 외국인 민박 서비스 제공

사람이 찾아 오는 곳을 만드는 게 농업·농촌 활성화의 중요 전략이다. 농촌을 찾아 온 관광객이 많아져야 '농업의 6차 산업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올해 농촌체험관광 1000만명, 외국인 방문객 10만명 돌파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에 나서고 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촌 관광객 870만명, 외국인 8만3000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특색있는 농촌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촌관광 1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우선 농촌의 인접 체험마을을 연계하고, 공모전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외국인 전용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가령, A마을에서 영농수확체험을 한 뒤 B마을에서 음식체험을 하고 C마을로 이동해 레포츠 체험을 하는 식으로 체험마을을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또 올해 본격 도입되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각 시·도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전국 3000여 중학교에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스마트팜, 6차산업(농촌관광포함), 수출 등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산업에 대해 알려주는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콘텐츠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현장체험과 연계해 도시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도 국내외 여행사 및 크레일관광개발과 협업체 농촌여행 상품개발 및 판매를 한다.

지난해 국내여행객 대상 민간여행사 및 크레일 연계 농촌관광 상품 55종 가운데 운영성과가 높은



이동필 장관

상품을 개발해 신규 10종 등 총 65종을 운영한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는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 공모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도·접근성·수용태세 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도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농촌체험관광 포털 '우리나라좋은마을 웰촌'(www.welchon.com) 및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양질의 농촌관광정보를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농촌관광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2016~2018년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해 중

화권 대상 집중홍보와 해외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우수관광자원 설명회 및 팸투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실제, 충남 청양의 알프스 체험마을은 농사에 취약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겨울 얼음 분수 축제 등 4개월 다양한 축제로 연간 3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으뜸촌이 됐다.

이동필 장관은 "농촌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교육농장, 낙농체험목장 등 다양한 농촌관광자원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고 최근에는 단순히 보는 여행 트렌드 변화로 농촌관광산업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농촌관광의 핵심사업인 900여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주민 15만 명이 참여하고 연매출액 1000억원을 올리는 등 농촌관광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외국인 대상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 및 통역,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세계 최대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엔비와 협력하여 우수농가민박 등을 대상으로 해외 예약 결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

중소 지원금 광주신보 전달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본부장 김귀남)는 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2억2700만원을 전달했다.

농협은행 광주본부가 지난 2007년 이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총 금액은 15억6600만원이다.

NH농협은행이 출연한 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쓰여질 예정이다.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 따른 사회적인 소비위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호기업인들의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귀남 본부장은 "광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원활히 자금을 지원하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금 출연과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최선을 노력할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

에텐원 200명에 참가

농협전남지역본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지난 27일 나남축산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노인복지시설인 에텐원을 찾아 '축산물 정나눔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축협(조합장 안명수)과 나남축산운동본부와 함께 에텐원 급식 이용자 200여 명에게 삼계탕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강남경 본부장은 "무더운 여름을 맞아 작지만 정성어린 나눔의 손길을 전하게 되었다"며 축산인의 소중한 정이 담긴 삼계탕을 함께 나눔으로써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남축산운동은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법 축산인이 펼치는 사회공헌 실천 운동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축협, 한우 최대 30% 할인

오늘부터 내달 13일까지

광주축협(조합장 안명수)은 29일~오는 8월 13일 '바캉스 한우고기 톤큰 할인행사'를 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올해는 여름 휴가철에 즐겨 먹는 축산물의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축협이 마련했다.

한우 1등급 이상 등심, 국거리, 불고기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20~30% 안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휴가철에 가장 즐겨 찾는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또한 20% 할인 판매한다.

광주축협(조합장 안명수)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가 한우 및 돼지고기를 구입하는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앞으로도 안정적인 한우고기 소비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농림부, 돈 되는 곤충산업 키운다

곤충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됐다. 환경을 지키고 농가에 고수익을 안겨주는 곤충산업이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곤충 산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해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곤충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2007년 11조 원에서 2020년 38조 원으로 예상되며, 국내 시장은 연간 3000억 원 정도. 2020년에 5363억 원으로 1.8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사육 농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육시설 및 규모에서 영세한 수준이다. 산업 종사자가 곤충 생산 및 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30% 정도이며, 종사자 매출액은 1000만 원 미만인 60%이고 1억 원 이상 고소득자는 9% 수준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6 생명산업대전'을 오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17일간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주제는 '대한민국 창조농업, 미래를 더하다'이

종자센터 설립 등 5개년 추진 8월 15일까지 '생명산업대전'

고, 스마트농업관, 고부가가치관, 힐링체험관 등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대량소비가 가능하며, 농가 소득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 부문에 대해 우선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개별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제1차 종합계획이 농업의 범위에 곤충을 포함하고 유용 곤충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였다면, 제2차 계획은 본격 산업화를 위한 전주

기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이 계획을 통해 5년 후 곤충 산업 규모는 1.4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사육 농가는 1.6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했다.

또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하여 곤충의 질 병관리와 종자보급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오는 2020년까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흰점박이꽃무지 등 사육 개체수가 많고 식용으로 활용되는 곤충 10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종중 품질 표준화 및 보급체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곤충종자 생산단계 세분화 및 단계별 관리 주체 설정으로 위생적이고 균일한 곤충 종자 생산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채널A 종합뉴스

가장 빨리,
매일 저녁 7시 20분에
뵙겠습니다



박상규 보도본부 부본부장



김설혜 보도본부 기자



매일 저녁 7시 20분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